

새파란 청춘

내가 이렇게 눈동자를 크게 굴린 적이 있던가. 얼굴은 정면을 마주해야하지만 동공은 어디를 응시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학교들은 왜 굳이 여러 명을 한꺼번에 마주하게해서 혼자 자기소개를 하게 만들어 전학생에게 부담을 주는 걸까.

“자기소개 한 번 짧게 해줘”

하지만 이 세월을 거치고 이름 하나 말하는 거에 벌벌 떠는 내게도 충분히 골치가 당겼다. 선생님의 자기소개를 해달라는 말씀에 안 그래도 떨리는 심박이 더욱 날뛰었다. 나는 눈을 한 번 질끈 감았다 뜨고, 입술을 핏은 뒤 입을 열었다.

“허 명이라고……”

역시나 목소리는 점점 미세해져만 갔다. 결국 이어가던 말의 끝자락인 ‘합니다.’는 소리는 내뱉지 않은 채 입모양만 끄뻑였다. 말을 끝내고 난 뒤, 혀를 깨물며 말없이 선생님께 결눈질을 했다. ‘전 여기까지 말 할래요’ 라는 뜻으로 눈치를 준 것이다. 그러자 선생님이 알아 차렸다는 듯, 다시 정면을 보며 나에게 대한 소개를 이었다.

“그래. 명이는 모르는 게 많을 테니까 많이 알려주고 그래라. 알겠지, 니들?”

아이들은 하나같이 무심한 투로 “네”라며 답했다. 그 중에 몇몇은 대답을 하지 않은 것 같다.

소개가 끝난 뒤 나는 맨 뒷자리로 터벅터벅 걸어가 책상 밑에 있는 의자를 꺼냈다. 그런데 우연히 옆자리에 앉아있던 애와 눈이 마주쳐 잠시 흠칫, 행동거지가 멈췄다. 그 애와 내가 서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자, 나는 아차 싶어 그제야 눈을 먼저 떼고 의자에 앉았다. 긴장감이 아직도 풀리지 않은 것인지 의자에 앉자마자 한숨을 더한 콧김이 픽, 뿜어졌다. 아까 마주쳤던 눈빛이 웬지 모르게 날카롭게 느껴졌다.

적응은 못하더라도 공부는 야심차게 해보자. 어젯밤 미리 굳혀놨던 다짐이다. 물론 이 곳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앞길을 예상하기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부모님 속앓이를 최대한 낮추고 싶었다. 언제까지 속을 썩일 수는 없으니까. 첫날을 좋게 보내면 그 다음 날도 분명 괜찮을 것이다. 나는 어젯밤에 중얼거렸던 다짐을 다시 한번 굳히고서 교과서를 펼쳤다.

점심을 최대한 빨리 먹고 난 뒤, 나는 교실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숱을 헤집으며 울상을 지었다. 생각을 그만두고 싶었지만 급식소에서 일어난 일이 눈앞에 아른거리어 벗어나질 않았고, 속에서 후회막심이 들끓었다.

진짜 호구 아냐? 왜 그랬냐고. 왜……

차라리 괴성이라도 지르고 싶었다. 하지만 반에는 나 혼자 자리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천박한 짓은 민폐로 돌아갈 뿐이었다.

급식소에 들어가 앞줄에서 실컷 떠들고 있는 1학년 후배들,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는 3학년 선배들과 여러 선생님들을 보고 있자니 주변이 귀신으로 둘러쌓은 듯 심장이 냉기에 사로잡힌 것 같았다. 긴장한 티를 내지 않으려 해도 동공이 헤매었다.

“너 오늘 처음 온 애구나?”

식판에 밥을 받고 있던 도중 국을 나눠주시던 조리사 선생님이 살갑게 물어보셨다.

“네? 아, 맞아요.”

다행히 떨지 않고 잘 맞받아쳤다. 그래도 나와 같은 학생보단 어른과 말을 주고받는 것이 그나마 순탄했다. 이렇게 짧은 대화라도 그다지 거리낌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렇게 급식을 다 받고 난 후, 2학년이 모여 있는 식탁에 앉으려고 하자 나는 의도치 않은 고역을 마주했다.

“허 명이라고 했나? 같이 먹을래?”

보통 내 나이 또래들이라면 그 상황에서 오케이, 받아주겠지만 등신 같은 나는 예고도 없이 던져진 말문하나에 거기서 얼음이 되어버리고만 것이다.

“아, 그…… 아냐, 괜찮아.”

나는 그렇게 말하며 손사래를 더했다. 생각할수록 머리에 열을 올리는 대답이었다. 거기서 뜰필 필요는 뭐가 있고 굳이 손까지 저어서 거부의 표를 해야 됐었냐고…… 하지만 그 대답의 당사자인 나도, 나에게 친목을 쌓으려 시도하던 그 친구도 무안하게 하는 그런 말투와 대답을 그 상황에선 잘도 나불댔다.

그 친구는 애써 겸연함을 감추려는 듯 “아, 오케이. 혼자 먹는 거 좋아 하는구나.”하며 얼버무렸다. 그 애도 다른 평범한 아이들처럼 기꺼이 수락할 줄 알았던 것이다. 그제 서야 나는 아차, 싶었지만 이미 말은 입 밖으로 내밀어진 상황이었다. 나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의자에 앉았다. 하지만 표정과 달리 내심은 엉망진창이었다. 여유롭게 받아치지 못한 내가 원망스러웠고, 팬스레 겸연쩍게 만든 그 친구에게도 매우 미안했다. 나는 점심을 먹는 동안 그 상황이 쉽사리 떨쳐지지 않아, 내내 가시방석인 심정으로 재빨리 먹어치웠다.

나는 순식간에 죄인이 된 기분이었다. 초면인 친구에게 고리타분한 감정을 심어준 것에 미안해하는 건 당연한 건지, 아님 단지 서투를 뿐인데 기겁하는 내가 유난인 건지 헷갈리기만 한다. 심지어 첫날부터 이렇게 흔들리다니 타이밍도 재수가 없다. 다음에 만나면 미안하다고 말할까.

그렇게 생각하던 찰나 급식실에서 마주쳤던 그 애가 두 명 정도 되는 친구들과 킬킬거리며 들어왔다. 나는 다급히 눈을 창밖으로 옮겼다. 최대한 저 들에게 신경을 두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귀는 자꾸 그 무리의 잡담에 기울이게 된다. 혹시나 그 오고가는 대화에 내가 들지는 않을까. 내가 모자라거나 미숙한 애라고 떠벌리진 않을까. 아까 급식소에 있었던 일을 꺼내진 않을까.

쓸데없는 잡념이 계속해서 떠오르자 갑자기 바깥바람이 그리워졌다. 급식을 빨리 먹어서인지 1시까지인 시간이 여유로웠다.

나는 가방이 걸린 의자 뒤에 숨어 반 전체를 스윽, 둘러보았다. 그리곤 이어폰과 핸드폰을 꺼내어 후드가디건 안쪽주머니에 숨긴 뒤, 후드가디건을 말아 품에 안고 허둥지둥 반을 빠져나왔다. 아직 학교에서 핸드폰 사용을 허가하는지는 모르지만 오전에 핸드폰 내리는 소리가 없었으니 괜찮지 않을까하는 어리석은 생각이 들었다. 그런 걱정보다는 음악이라도 들어야 뚝덜 것 같은 내 막혀있는 속이 먼져였다.

아직 점심시간 초반이라 그런지 복도는 그리 어수선하지 않았다. 나는 복도를 지나쳐 현관으로 걸다시피 뛰어갔다. 학교 밖으로 몸을 꺼내자 오후가 지나다 보니 적당히 따스했던 햇살도 후더분해졌다.

나는 최대한 사람들과는 거리가 있을만한 곳이 어디일지 떠올려보았다. 곰곰이 예측해보니 딱 한 군데가 떠올랐다. 나는 학교 뒤편으로 걸어갔다. 분리수거장을 지나 뒤편에 가보니 내 예상과는 의외로 어느 정도 공간이 있었다. 그런데 그 모양새가 공허하고 서늘한 공기를 유지하는 내 예상의 공간과는 전혀 달랐다.

그곳엔 널찍한 파고라에 그늘진 벤치 여섯 개가 한 면을 비워둔 채 직사각을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편 이름 모를 꽃들이 나란히 심어져 있는 아담한 화원이 있었다. 햇빛에 반사된 꽃잎이 실바람에 팔랑이는 모습을 보자 두 눈이 번쩍 뜨이고 감탄사가 뿜어졌다. 도시에서 다니던 초, 중학교도 이런 공간은 본 적이 없는 데……

나는 멍하니 눈을 떼지 못하다 이내 생각을 그만두고 바로 가장 안쪽에 자리한 벤치로 달려갔다. 그 자리가 가장 파고라 그늘에 가려져있어 학교 창문에서부터 충분히 몸을 숨길 수 있었다. 벤치에 앉은 뒤 핸드폰을 꺼내 전원을 켜 다음 음악 어플로 들어갔다. 역시나 이번에도 눈에 들어온 건 윤하라는 가수의 'Set Me Free'였다. 올해 초에 처음으로 알게 된 노래인데 늦여름인 아직까지도 푹 잠겨있다. 이 노래만 들으면 무겁게 느껴지는 기분도 순식간에 하늘을 나는 듯 자유로워지는 기분이 든다. 처음엔 잔잔하게 이어지다가 하이라이트에 웅장하게 퍼지는 그 멜로디는 여전히 흑하게 만든다. 요란스러운 노래보단 잔잔한 노래를 선호하는 나도 이 노래의 하이라이트에 쉽사리 벗어날 수 없었다.

이어폰 스피커 너머로 묵직한 피아노음이 들리자 컷가를 따라 온몸에 전율이 퍼지는 것 같았다. 이제야 기운이 조금 놓이는 것 같다. 잠시 아까의 일은 뇌리에서 치워두고 눈을 지그시 감아 음악에 귀 기울였다.

그렇게 가만히 노래를 감상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어떤 가사에 눈이 뜨였다.

'Set me free let me be 이젠 지겨워졌어 Set me free let me be 너무 지쳐버렸어 Set me free let me be 더는 견딜 수 없어'

웬지 모르게 정곡이 찢리는 가사였다. 지금까지의 기분과 맞닿아있어서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참, 오랜만에 느끼는 공감이다. 나도 얼마나 부딪쳐왔고 또 그 때문에 얼마나 무너지고 울고불고 지겹도록 지치는 것을 반복해왔는지……

나는 이 가혹한 생활패턴이 매우 원망스러웠다. 사람들 무리에 원치 않게 섞이고, 떠밀리고를 반복하는 그동안의 시간들이. 내가 밀어내고 피하려 해도 내일이면 눈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어딘가 결핍되어있다고 함부로 가해를 하며 선을 긋는 사람들. 나는 지금까지 그러한 사람들만 보고 자라며 한 번도 제대로 이어진 관계를 맺고 쌓아본 적이 없다. 아무리 작은 인과라도 시선, 그 시선이 두려워서 최대한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다. 물론 아무것도 몰랐을 시절엔 그저 꼬마펭귄처럼 노는 것이 제일 좋은 순간이었고 또래 친구들끼리 모여 수다를 떠는 게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던 시절도 있었다.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이렇게 겁보로 자랄 줄도 몰랐을 것이다.

그래서 이 노래에 빠지게 된 걸지도 모르겠다. 삶은 과만하게 복잡하고, 이 길로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대로 가면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지 예견을 심어주는 일이 없으니까. 차라리 이 노래를 듣는 시간만큼은 빛 같은 세상에서 벗어나 하늘에서 내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는 상상을 만끽하는 거다. 영켜있는 실뭉치 같은 세상에 꼬여진 욕신이 너무 서러워서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의 그 감동을 되풀이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잡생각을 떠올리던 도중 노래가 끝이 났다. 시간을 확인해보니 딱 1시 반이었다. 이상하게도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데 아무도 이곳에 오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딱 바람쐬기 좋은 곳인데 말이야…… 나는 플레이리스트로 들어가 아까 듣던 노래를 다시 재생했다. 지금은 이 시간을 만끽하고 싶었다. 세 번만 더 듣고 바로 교실로 돌아가야지.

어젯밤, 잠을 못자서 그런지 수업 후반부터는 칠판을 보는 눈도 흐리멍덩해지고, 선생님의 음성이 희미하게 귀를 간질였다. 나는 몇 번 뺨을 뺨한 고개를 겨우 붙잡으며 수업에 집중했다. 내내 시계를 흘기며 네 시 반이되길 절실히 기다렸고, 수업을 마치는 예정시간이 2분 조금 지나며 수업은 막을 맞았다.

수업이 끝나자 수업 내내 낚시도 보이지 않던 활기가 돌았다. 나는 급히 가방을 챙겨 교실을 빠져나왔다. 복도 쪽을 보니 옆 반도 수업을 마쳤는지 학생들은 복도로 우르르 몰려들었다. 나는 빠른 걸음으로 교문을 빠져나왔다. 같이 가줄 사람이 없다는 건 전혀 개의되지 않았다. 오히려 곁에 사람을 두고 집에 간다는 것이 더욱 숨이 막히는 편이니까.

버스정류장으로 들어선 뒤 안내판을 살폈다. 내가 사는 아파트 쪽으로 가는 버스는 10분 뒤에 도착한다고 떠있었다. 나는 확인을 끝내고 의자에 앉았다. 유리판에 등이 닿자 한숨이 돌아갔다. 핸드폰을 꺼내 전원을 키고, 메시지 창으로 들어가 엄마에게 하교를 했다는 것을 알렸다.

‘엄마, 나 학교 끝나고 집 가는 중’

그러자 엄마는 어서 오라는 손짓을 하는 이모티콘을 보냈다. 귀엽게 움직이는 캐릭터가 눈에 들어오자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때, 쿵가로 벽적한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자 우리 학교 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남녀 상관없이 어수선하게 붙어 다니며 수다를 떨고 있었다. 나는 그 애들을 보며 조금 생소한 감정이 부풀었다. 내가 전에 다니던 초등, 중학교는 마치 누가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을 분류해놓은 듯 따로 떨어져서 놀고는 했다. 남자애들은 교실에서 함께 노는 것이 드물었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만 되면 늘 운동장으로 나가 축구든, 피구든, 배드민턴이든, 체육창고에서 기구를 꺼내어 놀곤 했고 여자애들은 교실 구석이나 중앙에 책상을 모아놓고 수다를 떨었다. 나는 그런 여자애들을 보며 ‘이야깃거리가 어떻게 늘 생길 수가 있지?’라는 의문이 싹트고는 했다. 나는 어느 구역에도 발을 던지 못했다. 앉아서 내 하루 일과나 재밌었던 일들을 나누는 것도 그리 흥미가 닿지 않았고, 나가서 땀을 질질 빼고 오는 것도 관심이 가지 않았다. 내가 관심사에 두지 않는 것들을 아이들은 좋아했고, 내가 관심을 가지는 것을 아이들은 멀리했다. 어쩌면 그것 또한 내 결점이었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아홉 살 때부터 웹툰이나 만화에 큰 관심이 생겼다. 그때는 내용을 그리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 내가 가장 빠져있던 부분은 인물이나 배경이었다. 자신만의 그림체로 섬세히 묘사한 그림들을 보며 나도 언젠가 실력을 발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후로 내 책가방 속에는 스케치북이나 종합장이 꼭 동반하고 있었다. 초등학교 저학년 무렵부터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것에 흥미가 말랐기에, 놀 거리나 흥밋거리를 찾아낼 수 없었던 내게 책상에 앉아 조용히 그림 그리는 시간은 칙칙한 공기로 가득했던 쉬는 시간을 쾌적하게 변형시켰다. 꽤나 손에 잘 맞는 적성이라 그런지 고학년이 되어서도 그림에 대한 취미는 멈추지 않았다. 처음엔 즉흥으로 생각나는 대로만 그렸다면 점점 스토리도 구상하게 되면서 짧은 단편만화 같은 것도 많이 그려냈다. 지금 보면 대사도 스토리도 미숙함이 없지 않아 눈에 띄긴 하지만, 작품을 그려내는 과정에선 늘 태산 같은 즐거움이 뒤따랐다. 하지만 그 취미가 한창때의 아이들에겐 그저 만만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받아들인 걸지도 모른다.

내가 열세 살이 되던 쯤 조용히 앉아서 뭘 그럴지 갈등을 하던 도중 어떤 아이가 내 옆으로 다가왔다.

“이거 잠깐 빌릴게”

그 애는 그렇게 말하고는 방금 막 깎은 노란연필 하나를 집어, 내 눈앞에 흔든 뒤 돌아갔다. 내 대답은 처음부터 안중에 두지 않았다는 듯한 태도가 조금 꼴불견이었다. 더 재수 없던 건 아직 대답을 내놓지 못했는데도 손가락을 필통에 휘적이고 연필을 빼가는 그 애의 모습을 다 봐놓고도 아무 말도 내뱉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돌아서는 뒤통수를 흘기며 다시 노트에 시선을 집중했다. 그러자 동시에 뒤에서 숙덕이는 소리가 일었다. 나는 노트와 샤프를 번갈아보며 애써 그림에 몰입하려 했지만 컷가가 절로 등 뒤로 기울어졌다.

“야, 이거 재가 쓰는 거래.”

“허얼~ 즐라 구려. 그림 그런다는 놈이 이런 거 써먹냐.”

그 뒤로 킁킁, 소리가 이어졌다. 예상치 못한 비열한 말에 얼굴이 타들어갈 듯 핫 핫해졌다. 나는 열기 오른 이마를 손으로 한 번 만지작거리곤 애써 무시하며 종이에 심을 올렸다. 그러자 어깨위로 제법 따끔한 기운이 자극했다.

“아!”

내가 어깨를 감싸고 소스라치며 뒤를 돌아보자 네 명 정도의 아이들이 날 보며 미친 듯이 웃어댔다. 그중 바로 내 옆에는 필기구를 빌린답시고 함부로 집어갔던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의 손에는 방금 내게 빌려간 연필 들려있었다. 아까 그 찢린 감촉은 그 아이가 연필심으로 어깨를 찌른 것이었다.

나는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찢린 부분을 손가락으로 훑어보았다. 중지와 약지 끝에 피가 스친 자국이 보였다. 시뻘건 피가 눈에 들어오자 눈가랑 코가 저릿해졌다. 나는 울상이 된 얼굴을 최대한 숨기며 교실을 빠져나왔다. 문을 벽차고 나오면서도 내 뒤로는 수업 째는 거 아니냐며 비웃는 아이들의 음성이 전해졌다.

떠올려질수록 속에서 억울할 만치 분한 감정이 샘솟았다. 아무리 참아내려 눈에 힘을 쥐도 결국 눈물은 넘쳐흘렀고 콧구멍엔 멸시적인 웃음소리들이 고스란히 남아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나는 흐릿한 시야를 뒤로하고 보건실을 향해 달려갔다. 솔직히 말하자면 상처를 치료하고 싶었던 마음보다는 그 교실에서 어떻게든 멀어지고 싶었던 마음에 뛰어나는 편에 속했다.

보건실에 도착해 문을 두드리자 보건선생님의 들어오라는 응답이 들렸다. 나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민망한 얼굴을 드러냈다. 선생님은 다소 놀란 표정으로 나를 토닥이며 물었다.

“왜 그러니? 어디 많이 아파?”

나는 눈물자국을 손등으로 걷어내며 어깨와 목 사이에 자리한 상처자국을 보여줬다. 그걸 보자 선생님은 혀를 차며 나를 앉힌 뒤 연고와 반창고, 면봉을 꺼냈다.

“찢린 거라서 그리 큰 상처는 아닌데 많이 놀랐나 보네.”

나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다. 연유 모를 빈정을 더해 해코지까지…… 곱씹어 볼수록 방금 전 갑작스레 일어난 일이라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저 분에 찬 마음에 눈물만 뿔굴 뿐이었다.

양호실을 나선 뒤 복도 끝에 가만히 앉아 들어갈지 말지 망설였다.

또 연필심이 몸에 박히면 어떡하지? 아님 다른 방식으로 괴롭힌다거나…… 근데 왜 나한테 그러는 거지? 내가 짝힐만한 짓이라도 했나?

불길한 근심이 이어지던 도중 의문이 그 사이를 파고들었다. 내게 불만이라도 있는 게 사실이면 말을 해야 방안을 찾지.

나는 잠시 곰곰이 고민하다 결심한 듯 일어섰다. 그 네 명의 얼굴을 떠올리기만 해도 마른침이 식도로 넘어갔지만 오히려 이 짓곳은 행동은 묵힐수록 점점 날이 설 거라고 짐작했다. 나는 심호흡인지 한숨인지 모를 숨을 입으로 털어내곤 교실 문을

열었다.

“와~ 요것 봐라. 발로 그랬나. 섬세하게 그려놓은 게 하나도 없네.”

“붕신아. 개 원래 그림 좇도 못 그리면서 혼자 열라 가오 잡는 거잖아.”

“아, 조온나 징그럽네. 오타쿠같은 새끼.”

너덜너덜하게 열려있는 책가방, 내 자리가 아닌 다른 사람의 책상에 함부로 쌓여져있는 여러 스케치북이나 노트들, 필기구가 반이나 사라져버려 헐거워진 필통, 내 노트를 꺼내 낄낄대며 함부로 엮담하는 아이들. 겨우겨우 마음을 달래고 왔는데 그 광경이 눈에 담기자 한층 더 서러워졌다. 나는 이성을 놓은 듯 그 무리들에게 달려 들었다.

“아아악! 이거 봐!”

나는 아까 연필로 내 어깨를 찍었던 애한테 달려가 두 손으로 머리채를 붙잡고 쥐어뜯을 기세로 흔들었다. 그 애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등을 세게 박았다. 아울러 내 그림을 보며 익살맞은 웃음을 주고받던 아이들도, 옆에서 담소를 나누다가 우당탕 소리가 들리는 곳에 고개를 돌린 같은 반 아이들도 눈을 부릅뜨며 얼어붙었다. 그러다 옆에 있던 한 명이 이내 정신을 차리고 “야, 빨리 둘 떼어내!”라며 내 두 손목을 붙잡았다. 그러자 옆에 있던 두 명이 그걸 듣고는 한 명은 그 연필로 찌른 애를 옆에서 감싸고 나머지 한 명은 나를 잡아당기는 시늉을 했다. 하지만 그렇게 나를 둘러싼 상황은 오히려 타들어가는 내 악감정에 기름을 부었다.

그때의 나는 정말 불가피할 정도로 눈이 돌아갔다. 내 손 안에서 발버둥치는 그 애가 전혀 안쓰러워 보이지 않았고, 동정심마저 조금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또한 교실 군데군데에서 주뻔거리는 아이들마저 내 눈은 상관하지 않았다. 심지어 나는 그 애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관념에 정신이 팔려 내 눈에 눈물이 흘러는지도 자각하지 못했다. 나는 눈물을 한 방울, 두 방울 떨어트리며 손아귀에 힘을 주었다.

그런데 그 찰나에 머리에 극심한 두통이 울렸다. 방금까지 내 두 손목을 쥐고 있던 애가 내 머리에 발길질을 날린 것이다. 내 손아귀엔 몇 가닥의 머리카락이 뒤따라 뺏혔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잡고 굴렀다. 피가 새어나올 듯한 고통이 머리에 퍼져 안 그래도 축축이 젖은 눈에 또 눈물이 찼끔 나왔다. 하지만 움직임 틈도 없이 이번엔 두 명에서 나를 이리저리 밟거나 걷어차며 욕을 뿌리기 시작했다. 두 발자국 거리에선 내가 먼저 시비를 건 애를 한 명이 괜찮냐며 달래고 있었다. 흐릿한 눈 사이로 그 애가 눈에 들어오니 분에 가득찬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 나는 몸을 최대한 둥글게 웅크리며 머리, 등, 하체 상관없이 온몸에 날아오는 발길질을 받아낼 수밖에 없었다.

“야, 어떡해? 저거 말려야 되는 거 아냐?”

“아니, 그렇긴 해도 어떻게 말려야 되는데?”

“나도 몰라! 근데 재도 억울한 일을 만들기는 했잖아? 우리가 나서다가 우리까지 피해 받으면 어떡해. 괜히 불똥 튀일 만들지 말자고.”

“그래, 방금 인경이가 선생님 불러 온땀으니까 선생님이 말리겠지.”

옆에서 보고만 있던 아이들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억울한 감정은 아이들이 주고받은 말에 서서히 부풀어 단숨에 뇌리를 차지했다. 왜 이 싸움의 원인은 내가 시발점이 되었다는 걸까. 사람의 심기를 건드린 짓을 피한 건 다른 애들인데 왜 내가 싸움의 불씨취급을 받는 걸까. 심지어 남의 물건을 건드린 걸 똑똑히 봤을 텐데도 왜 말릴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만 할 줄 모르는 애들이 나한테 나무라할 자격이 있는 걸까.

‘가만히 할 일 하던 애한테 연필심을 찍어 내린 놈이나, 남의 기분은 고려하지도 않으면서 본인 성을 건드렸다고 죽일 듯이 꽤는 놈들이나, 말리기는커녕 도움도 요청하지 않는 놈들이나…… 다 쓰레기 같은 새끼들. 모조리 사라졌으면 좋겠어. 내 손으로 어떻게든 해버리고 싶어.’

그렇게 속으로 저주를 퍼붓던 도중 담임선생님이 고함을 지르며 문을 벌컥 열었다.

“너희들 뭐하는 거야!”

그 말을 끝으로 나는 겨우 악착같은 폭력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점심을 먹고 난 후 그 네 명과 나는 상담실로 끌려갔다. 나는 선생님이 아까처럼 아이들을 향해 소리를 한바탕 지를 줄 알았다. 왜 폭력을 사용했냐고, 그건 절대 있어선 안 될 상황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 없이 낮고 조심스러운 음성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다. 처음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무슨 동화책이라도 읽어주는 줄 알았다. 심지어 내가 가장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먼저 하나하나씩 질문을 던졌다. 무슨 일 때문에 싸웠냐, 명이가 너네한테 무엇을 저질렀냐, 명이를 때린 이유는 뭐냐. 선생님이 던진 질문들은 모조리 내가 더 정확하고 수월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었다. 하지만 그런 질문들을 내가 아닌 아이들에게 던진 만큼 아이들의 대답도 경악스러웠다.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제 머리를 막 잡으면서 시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 막 하고요, 연필 들고 위협도 했어요.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어 보이길래 저희도 모르게 때렸던 거죠.”

나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를 뻔했다. 니들이 먼저 내 가방 뒤지고 함부로 노트 꺼냈잖아. 그리고 연필로 찌른 건 너잖아! 하지만 내뱉을 수는 없기에 나는 주먹만 불끈 쥐었다. 선생님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 듣고 난 뒤, 나와 시선을 마주하며 질문 하나를 던졌다. 그 질문에 나는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와장창, 박살이 났다.

“명아, 애네가 한 말들이 다 사실이니?”

나는 우리나라는 눈물을 애써 꼭 참고 입을 열었다.

“선생님, 저는 먼저 시비 건 적도 없고요. 전 가만히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재가 연필을 빌려간다 해놓고 가져가서 제 어깨를 찔렀어요. 여기 보면 보건선생님이 반창고도 붙여주셨고요. 그리고 교실로 돌아오니까 애네가 제 노트든 스케치북이든 종합장이든 모조리 빼서 함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손부터

간 거예요. 물론 그건 제가 잘못된 것도 맞지만, 애네 둘은 조금의 사과도 없이 저한테 발을 날린 거예요. 저는 머리든 등이든 팔이든 다리든 다 맞을 수밖에 없었고, 그 때 선생님이 들어오신 거죠.”

긴 말을 끝내자 긴장이 풀린 듯 두 눈에 눈물방울이 불을 타고 흘러내렸다. 선생님은 여전히 무표정으로 알아들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희들 애긴 잘 들었고. 음, 하지만 폭력은 나쁜 짓이고 함부로 남의 물건을 건드리는 것도, 남이 먼저 내 심기를 건드렸다고 그 사람한테 폭력을 휘둘러도 안 된다는 거 너희 다 잘 알고 있지? 다들 잘못된 건 하나씩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마주보고 진심으로 사과하자. 알겠지?”

진심? 저 것들한테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이 있기라도 할까. 방금까지 늘어놓던 내 증언은 깡그리 무시된 듯한 선생님의 결론에 나는 무작정 반항을 시도해보았다.

“전 사과하기 싫어요.”

“뭐? 흠, 그래도 네가 잘못된 게 없는 건 아니잖아? 빨리 사과하고 끝내자. 다들 빨리 교실로 가고 싶을 거 아냐.”

“선생님 저는 최대한 빠른 사과가 아니라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싶다고요.”

그러자 내 앞에 있던 아이 한 명이 나를 찌려보며 통명스레 말했다.

“야, 우리도 미안하니까 그냥 빨리 끝내자고. 네 고집 땀에 없던 미안함도 소멸시켰다, 더럽게 진짜.”

분명히 거친 언행임에도 불구하고 이어 선생님은 맞장구를 쳤다.

“애들아? 빨리 마치고 돌아가자. 아니면 명이는 가만히 있고 너희 네 명이서 고개 숙이고 사과해.”

정말 보호자가 따로 없다. 자녀가 폭력을 쓰든 말든 조치도 내세우지 않고 상황을 무마시키는 최악의 범위에 속할 법한 부모.

“사과해” 그 한 마디를 끝으로 나는 결단내릴 수 있었다. 선생님은 소심하고 나약한 내가 하는 말보다 활발하고 공부도 나보다 열중하는 저 애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인다는 것, 선생님은 나에게 야박한 사람이라는 것. 아이들은 동시에 “미안해”라며 허리를 숙였다. 그렇게 선생님은 상담을 마무리 지으며 나와 아이들을 내보냈다.

복도에는 나와 그 무리들만 남았다. 나는 재빨리 복도를 벗어나려 교실로 뛰어갔다. 그놈들과 한시라도 같은 곳에 발을 붙이고 싶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뜸들이면 또 주먹이든 발이든 뭐가 날아올 것 같았다. 달리는 내 모습이 추해 비웃는다 해도 어쩔 수 없었다. 꼴을 당하는 게 맞는 것보다는 한결 낫다고 생각했다.

교실 문을 열자 수군대던 아이들의 입이 순식간에 잠잠해졌다. 그리고 아이들의 시선은 내가 이동하는 곳을 따라 움직였다. 울컥할 정도로 짜증이 났다. 괜히 억울한 감정만 치솟은 채 마무리되던 방금 전 일부러 자리에 돌아오니 쏘아대는 시선까지 눈물샘을 끝없이 자극시켰다.

나는 눈물자국이 가득한 얼굴을 내보이며 애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 조용히 앉아서 노트를 꺼내어 펼쳤다. 하루에 수없이 일어난 불의에 정신이 미치기

직전이었기에 뭐라도 그려야 심신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았다. 그리곤 겨우 샤프를 잡는 사이 네 명의 아이들이 돌아왔다. 역시나 상담이 끝나고 나서도 퇴짜는 계속되었다. 아이들은 일부러 내 자리를 지나가며 한 명씩 내 머리를 ‘툭’치고 지나갔고 마지막 한 명은 한 손으로 내 머리를 쥐어 몇 번 흔들고 내던지듯 놓았다. 세 명은 그 광경을 보고 히히대며 웃었다. 그쯤 되니 반격할 힘도 모조리 소모되었다.

나는 되짚어볼수록 선생님은 애들이라면 흔히 빼놓을 수 없는 장난이라며 눈길을 피하는 것 같았다. 또는 선생님의 말씀을 잘 귀담고 공부에 열심히 참여하는 아이들과 달리 아이들 중에서 성적도 높지 않고 체력도 약한 편인 나였기에 선생님의 눈길은 언제나 전자에만 해당 되어서 내가 소외되는 게 아닌가도 싶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그런 관념은 던져버려야 마땅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선생님이란 직업을 이어나가는 건 옳지 않았다.

집에 돌아가서 엄마와 아빠에게 알리자 아빠는 그런 애들이 아직도 존재 하나며 불같이 화를 냈고, 엄마는 무슨 이유에서 그런 거냐며, 선생님께 알리긴 했냐며, 잘 풀린 거냐며 조심스레 하나씩 물어봤다. 나는 “선생님께 말은 했는데”라는 말을 시작으로 묵혀두었던 말들을 모조리 재잘댔다.

“근데 선생님은 내가 맞고 있는 걸 짧게라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막힘없이 잘 설명해도 ‘미안해’ 한 마디로 끝냈다니까? 심지어 오히려 개네를 감싸주더라고. 개네가 빨리 끝내자고 하니깐 선생님도 말로는 표현 안 했지만, 온몸으로 동의를 표하더라. 내가 열심히 나불댔던 증언은 안중에도 없고…… 게다가 나는 개네가 내 그림을 함부로 보니까 한 번 머리채잡고 흔들기만 했거든? 물론 이건 잘못된 게 맞지. 근데 개네 네 명이서 물건에 손을 대고, 샤프로 찌르고, 발로 찬 거를 내 저지른 짓과 동등하게 여기더라. 심지어 거짓말까지 했는데 선생님 동공이 한시도 흔들리지 않더라. 어떻게 개네가 저지른 모든 짓을 머리채 한 번 잡은 거랑 무게를 똑같이 판단 하나요. 아무래도 개네가 나보다 본인이랑 더 친화해서 그러냐? 아니면 그냥 쌤의 눈에는 내가 맨날 구석에서 그림만 그리고 있으니까 모자란 애로 보인 건가? 근데 그게 사실이라면 선생이라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이야? 어떻게 자신만의 시선으로 학생을 판단하고 상황을 결단하는 거지? 어떻게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엄마는 중간 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내 대답에 귀를 기울이다 내가 말을 끝내자 잠시 고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곤 잠시 후 내게 물었다.

“혹시 내일이나 늦으면 모레에 선생님 한 번 만나러갈까?”

나는 의외의 제안에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다. 단지 서운하고 답답한 마음에 고려도 없이 말을 늘어놓은 것뿐이었다. 그 일은 오로지 나와 그 아이들만의 문제라고, 문제의 해결방안은 엄마가 아닌 내 손안에만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만 보니 엄마에게 말한 이유도 알아줬음 하는 마음에 조잘댄 것인

데, 어찌면 도움이 필요해서 나도 모르게 입이 썩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부모님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갔다. 학교폭력과 교사와의 관계의 문제가 얽힌 이야기다보니 자식을 둔 부모에게는 마음에만 담아두기엔 충분히 목직한 내용이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껌판만 치지 말라는 말장난과 함께 웃으며 부탁했다.

“그래~ 오래간만에 담임쌤 얼굴 좀 봐야지! 내 새끼 건드린 죄로 한 방 먹이지 뭐.”

엄마는 다소 호탕하게 웃었다. 나는 그제야 안심이 사르르 놓였다. 그리곤 엄마를 따라 광대를 올리며 웃었다.

웃다보니 추잡한 일은 어느새 내 머릿속을 벗어나 있었다. 나는 내가 앓고 있는 난제라면 언제든 나서주는 엄마에게 감사하면서도 그전까지 근심에 차있던 속내를 한 순간에 환기시켜주는 엄마에 살짝 감탄했다. 이런 엄마가 내 곁에 있다니 나는 그것만으로도 행운이었다. 엄마는 언제든지 그 마음을 깨우치게 해주었다.

다음 날, 팬츠를까하는 마음으로 등굣길을 걷고 있는데 학교 정문에 가까워지자 머리위로 단단한 무언가가 ‘퍽’ 충돌하는 기운을 받았다.

“아, 뭐야.”

알게 성을 내며 뒤를 돌아보는데 뒤에서 그 전날, 나를 발로 밟아뺐던 그 두 명과 다른 반 애들 두 명이 나를 보며 배를 잡고 웃었다. 그리고 내가 지나온 자리 한 걸음 뒤엔 네이비색 가방이 떨어져 있었다. 다시 시선을 그 애들에게 옮기니 다른 반 한 명의 어깨만 가방이 없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나는 크게 울컥했다. 내게 가방을 던진 애는 그 작년에 나와 같은 반이었던 애였다. 그때는 내가 무엇을 하든 눈길도, 말도 붙이지 않았으면서 저런 애들과 입을 맞추거나 하고 밀도 끝도 없이 나를 공격해오다니…… 그 애의 돌발적인 행동에 배신감이 온몸을 뒤덮었다.

나는 애써 무시하며 교실로 뛰어갔다. 저런 장난 아닌 폭력에 반응이라도 해주면 그놈들에게 밥이 될 것이 뻔했기에 나는 앞으로 호응은커녕 시선도 내보이지 않겠다며 다짐했다.

진짜 지독한 놈들…… 언제까지 우려먹을 셈이야.

교실에 도착한 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야 마음을 놓일 수 있나싶어 문을 열자 같은 반 몇 명의 아이들과 다른 반이든 5학년이든 다른 반이든 학생들이 늘어 교실이 어수선했다. 나는 어리둥절하다 경악을 감추지 못했다. 몇은 내 책상에 낙서와 칼로 흠집을 내고 있었고 또 몇 명은 칠판에 분필로 내 이름을 쓴 뒤 ‘병신’, ‘나가 뒤져’ 등, 욕설을 붙여 써놓고 있었다.

그 중 같은 반 한 명이 나와 눈이 마주치자 “야, 저 새끼 왔다.” 하며 나에게 집중을 이끌게 만들었다. 책상에 칼을 긋던 어느 5학년은 나를 보자, 보란 듯이 더욱 신랄하고 세차게 그었고, 칠판에 낙서를 하던 학생들은 나를 향해 분필을 꺾듯이 내던졌다.

나는 교무실로 도망쳤다. 예전부터 도망치는 건 거의 두 손, 두 발을 드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나날을 몸에 멍을 세어가며 지낼 바엔 차라리 자존심을 버리는 선택이 더 옳다고 생각했다.

복도에서 교무실과 연결되어있는 창문에 눈을 들이미니 담임선생님은 무얼 정리하려는 듯 팔이 분주했다. 나는 꽤나 바빠 보이는 선생님을 보니 타이밍에 맞춰서 들어 가야되나 고민하다가 결국 다짜고짜 교무실로 들어섰다.

그런데 들어오긴 했지만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다. 선생님께 말한다 해도 저번처럼 도움이 되기는커녕 상처의 부피만 커질 수도 있다는 직감이 앞섰다. 나는 멀뚱히 담임선생님이 계신 자리를 주시하는 수밖에 없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3학년 선생님은 내게 다가가 물었다.

“곧 수업 시작 할텐데, 무슨 볼 일 있니?”

선생님의 목소리에 곧 정신을 깨웠다. 나는 결국 포기한 듯한 목소리로 “아무것도 아니에요.”라며 교무실을 나섰다.

교무실을 나가자 문을 ‘철컹’닫는 소리와 동시에 누군가 내 어깨를 툭, 잡았다. 나는 갑작스레 어깨에 얹어진 후끈한 온기에 움찔하며 돌아봤다. 언제부터 주시하고 있었는지 문 옆에 하루 전 나를 발로 차던 놈들 중 한 명이 매서운 눈빛으로 나를 관통할 듯 노려봤다. 나는 그 눈빛에 발목을 묶인 듯 두 다리가 뻗뻗해지고 얼음장에 둘러싸인 듯 등줄기에 오한이 돌았다. 그 애의 입이 점차 벌어졌다.

“선생님한테 또 까발리면 뉘진다.”

나는 지지 않겠다는 듯이 그 애를 췌렸다. 잔뜩 쫓려버린 심장을 애써 감추고 싶었다. 물론 아무리 힘을 써도 기에 놀리는 건 나였다. 그 애는 나를 보고 ‘피식’ 웃더니 반으로 돌아갔다. 반으로 들어가 문을 ‘쿵’ 닫는 것까지 다 지켜보고 난 후 그제야 한숨을 놓았다.

방금 전에 말하면 뉘진다는 말을 듣고 잠시 떠올랐던 한 마디가 있다. 입을 조금만 병긋해도 한 대 날릴까봐 차마 입을 열지 못했지만, 체념한 목소리로 그놈을 향해 한 방 던져보고 싶었다.

말해봤자 소용없어 등신아.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고 복도를 지나는데 교무실 앞에 엄마가 서있는 걸 우연히 보게 되었다. 곧이어 노크를 똑똑 두드리고 슬쩍 열린 문틈에 얼굴을 밀어 넣었다. 엄마는 선생님들과 눈이 마주친 건지 미소를 지으며 목례를 하곤 교무실로 들어갔다.

엄마도 티를 안내서 그렇지. 내가 학교폭력에 연관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밤새 들덩이에 짓눌린 심정을 떨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 천만한 일이 자신의 핏줄에 미칠 줄은 상상하지 못했을 테니까.

그래도 그 전날 대화를 했던 걸 떠올리면 맘 편히 믿음을 다져도 괜찮을 것 같았다. 딱히 긴 말을 하지 않아도 상황을 바로 인지하는 엄마였기에 면담에서도 충분

히 헤쳐 나갈 수 있을 거라 신뢰했다. 나는 그 놈들의 부모님을 만나 사과를 받든, 선생님이 어떠한 조치를 요구받든 면담의 결과만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했다.

방과후 수업이 끝나고 가방에 준비물을 넣으면서 잠시 고민에 잠겼다. 과연 좋은 결과가 나올까, 그 다음에도 괴롭힘이 멈추지 않으면? 같은 고민거리들이 아까의 안도가 그리 길지 않도록 뒤늦게 몰아쳤다. 엄마를 믿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찻찻한 기분이 들까.

일단 집에 가서 선생님의 말씀을 한 번 들어 봐야겠다. 나는 가방을 양어깨에 매 단 뒤, 교실을 나왔다. 핸드폰을 켜 시간을 확인해보니 3시 45분이었다. 나는 입으로 ‘헉’소리를 내며 놀랐다.

어쩐지 오늘 따라 수업이 길다 했어……

수업을 하던 반에 시계가 고장 나서 시간을 확인할 틈이 없었는데 선생님은 이 기회에 학생들을 속이며 방과후 감옥에 가둔 것이라고 뒤늦게 깨달았다.

나는 엄마에게 문자를 남겨두려 메시지 창을 키자 처음 보는 연락처가 적힌 메시지가 떴다. 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문자 내용을 확인했다.

‘혹시 허 명이라는 분 연락처 맞으신가요?’

나는 모르는 연락처임에도 조금의 강박감이나 거리낌도 고이지 않은 채 답장을 전했다.

‘아... 제가 허명인데요.’

전송을 보내자 곧바로 답장이 이었다. 나는 문자의 내용을 보고 심장을 떨구었다. ‘조금 있다가 XX아파트 XX동 앞으로 나와라. 무시하는 순간 다음에 죽여 버리는 수가 있다.’

냉기가 척추를 타고 미끄러지듯 살에 닿는 여름공기가 오싹하게 바뀌었다. 이어서 내가 그 위치로 가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내가 얼마나 처참한 꼴이 될지 절로 연상되었다. 하지만 차마 도망을 택할 용기도 없었다. 문자 내용 그대로 내가 찾아가지 않는 한 폭력이 얼마나 더해질지도 감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나에겐 오로지 겁이 치솟는 것을 외면하고 만나러갈지, 내일 만나서 배로 얻어맞을지 어느 쪽을 골라도 강박을 줄만한 선택지뿐이었다.

나는 뚫어오르는 두통을 부여잡고 엉엉 울며 부정했다. 샤프로 찌른 것만으로도 충분히 정도가 지나치다고 판단했는데 그건 겨우 불씨를 붙이는 행위에 불과했다니. 그것부터 시작해서 판이 이만큼 드넓어지다니. 심지어 내가 표점이 된지 불과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다니. 앞으로 이어질 폭력들이 무수하다니.

까마득한 눈 주위로 눈앞에 날아오는 발길질, 머리가 자리한 팔, 비속어들이 다분한 칠판과 책상이 다시 재연되었다. 나는 크게 식겁한 뒤, 멍대로 모습을 드러내는 기억을 지워내려 머리를 쥐고 흔들었다. 충분히 불안정한 심정인데도 거기다 형편없는 생각을 더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20분 동안이나 문 앞에서 망설였다. 시간을 끄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란

걸 알고는 있지만 쉽게 발걸음을 옮길 수도 없어 갈등은 길어져만 갔다. 그러다 갑자기 ‘최대한 몸을 숨기면서 가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생각해도 그런 용기가 어디서 분출된 건지 가늠할 수 없었지만, 마주치고 싶지 않은 만큼 얼른 집으로 돌아가고픈 마음도 굴뚝같았기에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도망치고 싶었다.

나는 최대한 눈치를 곤두세우면서 가자고, 그러면 집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다고 다짐하며 교실 문을 열었다.

“뭘야. 왜 안 오나 했더니, 여기 있었네.”

그러자 나보다 덩치가 두 배는 되어 보이는 학생 두 명이 나를 반겼다.

“너 부모님한테까지 까발렸더라?”

나는 고개를 들어 눈을 마주한 채로 얼어붙었다.

결국 학교 주변에 위치한 좁은 골목으로 끌려가 무자비하게 온몸을 걷어차였다. 그 전날 몸을 걷어차였던 때와 달리 다른 반과 다른 학년까지 모여 규모가 확연하게 묵직해졌다. 입술이 터지거나 점점 생채기가 늘어나고, 이리저리 굴러 옷이 흐트러져도 가해자들은 죄책감은커녕 크나큰 희락으로 느꼈다.

나는 얼굴만이라도 보호하기 위해 팔로 안면을 가리고 몸을 웅크렸지만 얼마가지 않아 팔마저 걷어차이고 이내 머리까지 구타의 표적이 되었다. 나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둔 가해자들은 학년 상관없이 담배를 치아에 쥐고 있었다. 도중에 흡연을 하고 있던 한 명이 입을 열었다.

“더 패버려. 다시는 입 못 열게. 저 새끼 또 쌤이나 애미애비한테 말해서 우리들 부모님 모시는 지경까지 오면 너네 다 귀찮아지는 거 알지?”

내가 부모님께 도움을 부탁했다는 사실이 그 자식들 귀에 스며든 것이었다. 내 입장에선 당연한 행동이었던 걸 그놈들에게 손해로 다가오자, 입단속을 시킨답시고 다시 폭력을 휘두른 것이다. 잠시 멈춘 줄 알았던 가해가 다시 돌아오자 억울함이 머리를 때렸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떨쳐내지 못하는 뒷에 걸린 기분과 같았다. 아무리 멍을 늘려가도 무자비한 발길질이 끊이지 않았고, 머리를 어질하게 만드는 담배연기는 오래도록 증발되지 않았다.

영겁 같던 주먹질과 발길질은 가해자들의 흥미가 메마르고 나서야 끝을 볼 수 있었다. 그토록 그리웠던 집으로 돌아온 나는 부모님이 돌아오시기 전 재빨리 하루새에 일어난 일들을 감추려 애썼다. 흠으로 뒤덮인 옷은 보이지 않게 빨랫바구니 속 빨래더미 안쪽으로 옥여넣고, 이유모를 불안감에 커튼까지 쳐 몸을 감추고 샤워를 시작했다.

“야, 내버려두고 그냥 가자고.”

한 명이 마무리를 지듯 내뱉자 가해자무리들은 내팽겨친 상태의 나를 툭툭, 걷어

차고는 골목을 벗어났다. 오랫동안 폭력이 끊이지 않았던 건지, 시간이 느리게 간 건지 모르겠지만 한 세월을 보내듯 끝자락이 까마득했던 시간이었다. 악몽 같은 기억이 다시 머리를 맴돌 때마다 신발밑창이나 바닥에 긁혀 생긴 생채기들이 서러운 마음만큼이나 쓰라렸다.

(이어서.....)

샤워를 마치고 수건으로 몸을 닦아내면서 온몸을 살피는데, 얼룩지지 않은 곳을 찾아내기 어려울 정도로 이곳저곳에 상해가 달라붙어있었다. 나는 그 순간 아찔한 생각이 들었다.

엄마나 아빠에게 들키면?

그 후로도 널찍한 칠판에는 온 가지의 욕설과 폭언이 이리저리 뒤섞여 보는 눈을 혼미 시켰다. 어떤 날은 채는 그림만 못 그리게 하면 시체라서 연필을 뺏든 노트를 찢든 손목을 자르든 해야 된다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유연히 엮들은 적도 있었다.

그 말이 귓가에 닿자 심장에 칼을 휘두른 듯 가슴이 저렸다. 그 악독한 언행에 부정은커녕 오히려 휘둘린 듯 동시에 그동안 수많은 필기구를 쥐어보았던 내 손바닥에 혐오감이 피어났다. 그 후로부터 습관처럼 샤프를 쥐었다가 이내 다시 떨구는 것을 반복하게 되었다. 나는 힐링적인 시간이라고 느꼈던 그림그리기가 내 약점으로 부각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는 그렇게 자연스레 손을 놓게 되었다. 내 무리한 일상에 꽃을 피우는가 싶던 취미가 어느새 나를 조롱하는 꼬리표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그 꽃을 짓밟아야겠다는 심정이 먼저 앞섰다.

어릴 때는 강자라면 약자를 어떠한 수도 제한되지 않고 얼마든지 가할 권리가 있는 건가하고 착각했다. 심지어 나와 같은 약자는 그 폭력에 수용하며 몸을 내주는 것이 이치구나라고도 판단했다. 그건 전혀 정당한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이 아닌 나는 이런 취급을 받아야할 숙명이라는 허망으로 뒤바뀌 부당함을 알아챌 수 없었던 것이다.

지금은 절대로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이미 자각하고 있으며 강자의 선에도 약자의 선에도 절대 발을 딛는 건 절대 공정하지 않음을 깨달은 상태였다. 하지만 그때부터 인지했다면 나는 나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네가 잘못된 게 아니라고, 충분히 사랑받고 씩씩하게 성장할 자격이 마땅하다고. 그때부터 나를 위로하는 법을 알았다면 그때보다 더더욱 자라있는 지금의 나는 더더욱 아프게 부딪힐

시련에도 발판이 되어줄만한 말들만 주렁주렁 했을 거다. 하지만 지금의 나에겐 힘
돋움이 되어줄 위로 하나조차 생각나지 않는다.

적당한 배부름을 이끌고 교실로 발을 들였다. 학교가 끝나지 않는 한 핸드폰사용
은 금지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면서도 나는 여전히 학교일과시간에도 핸드폰을 찾으
려 가방을 뒤적이다. ‘참아야지……’라는 생각은 ‘지금 내 심신을 위해선 음악이 필
요하다’라는 생각이 집어삼켜버린 지 오래였다. 곧 초여름인데도 이 충동을 막아내
지 못했다. 하지만 이 학교는 MP3마저 불가라니, 그런 점을 생각하면 오히려 학교
쪽이 너무하단 생각이 든다.

이제는 핸드폰을 몰래 사용했다는 죄책감보단 이제까지 들키지도 않은 내가 용해
보였다. 하지만 핸드폰을 빼내어 숨기고 표정관리까지 처리하는 데에는 여전히 선
불렀다. 솔직히 이정도면 애들이 모르는 척 해주는 건가 의심하기도 했다. 정말 그
런 마음이라면 매우 고마운 마음이 들겠지만, 나는 그러거나 말거나 핸드폰을 가디
건에 감싸 교실을 후다닥 빠져나왔다.

이 소도시의 공기가 청정한 편인 건지, 이 학교내부가 워낙 텅텅해서 그런 건지
학교 밖으로 발을 내딛을 때마다 들이마시는 산소가 점점 신선해졌다. 이제 바깥의
온도는 반팔을 입고 다니기에 적당하다고 느껴질 온도였다. 두피와 어깨에 햇살 특
유의 온기가 안착되자 기분이 좋은지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개인적으로 ‘Set Me Free’는 이렇게 한창 태양이 여리하게 빛을 뿜낼 초여름과 평
장히 잘 맞는 곡이라고 생각했다. 하이라이트는 그와 다르게 폭염마냥 우람하게 느
껴질 수도 있지만 초반에 나오는 피아노소리와 다소 날카롭게 들리는 핑음의 조합
이 초여름 즉, 딱 지금의 온도와 맞닿아 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신이 난 듯 경충이는 발걸음으로 학교 뒤편으로 갔다. 그런데 뒤편에 자리한
파고라가 눈에 들어오자 방금까지 신바람에 흘날리던 두 발이 브레이크를 밟은 듯
급히 몸을 세웠다. 그동안 나 말고는 여기에 머물던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파고라
가장 그늘진 자리에 등이 굽어보이는 앞모습 하나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나와 같이 몰래 핸드폰을 사용하는 듯 시선을 핸드폰
에 떨구고 있었다.

그 사람은 내 타닥거리는 발소리를 들은 건지 핸드폰에 집중하던 시선이 재빠르게
내가있는 쪽으로 쏘아졌다. 나는 눈을 피하지도 못하고 시선을 마주한 채로 얼어붙
었다. 나와 눈이 마주친 그 사람은 나와 달리 별 대수로 여기지 않는다는 듯 금세
눈을 떼어 다시 폰으로 옮겼다. 나와 같은 학생 같은데 저 자식도 어지간히 배짱이
대단하다. 몰래 폰하는 걸 목격한 사람이 있는데도 이르든 말든 떳떳하게 제 할 일
을 이어간다는 게 나로선 경탄할 일이다.

나는 얼어붙은 걸모습과 달리 머릿속으로 요란하게 좌우충돌을 거듭했다.

그냥 되돌아 가야되나? 아니면 그냥 나도 재처럼 신경 끄고 노래나 들을까. 근데 옆에 한 사람만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 하지만 이렇게 적당한 날씨에 ‘Set Me Free’를 못 듣는 다니, 분명 나중에 배가 아플지도. 그래도 이렇게나 화창한 날씨지만 사람하나 옆에 세워두고 노래를 듣느니 차라리 혼자 편하지 않겠어? 으음, 그렇기엔 날씨가 너무 아깝기도 하고……

갈등을 주고받던 도중 점잖아 보이면서도 어딘가 냉랭한 목소리가 귀를 두드렸다.

“내가 비켜줘?”

내 멍한 시선을 떨쳐내지 못한 건지 그 학생이 앞서 말을 건넸다. 나는 움찔하며 어병한 소리를 분출시켰다.

“어, 어?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앉아도 되는데, 그……”

이런 상황에서는 무슨 말부터 꺼내야할지 모르겠다. 일단 편하게 앉으라고 했어야 됐나? 아니면 혹시 괜찮다면 자리 좀 비워줄 수 있냐고 물어볼까? 그건 왠지 민폐일 것 같은데……

“그냥 앉아. 불편하면 가도 되고.”

“아, 아냐. 정말 괜찮아! 사람이 있을 줄은 몰라서.”

나는 애써 밝은 안색을 유지하며 다가갔지만 발바닥이 그 전보다 무거워진 게 명백했다.

과고라에 둘러진 그늘에 들어서자 후끈하던 땀이 순식간에 식었다. 하지만 사람을 마주쳐서 그런지 평소에 느꼈던 안식과는 달리 찝찝함만이 감돌았다.